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즘과조합주의

CNT 모델과그딜레마

바딤다미에

바딤다미에
아나키즘과조합주의
CNT 모델과그딜레마
2012

kr.theanarchistlibrary.org

2012

차례

“모순”에 관하여	3
“모든 노동자에게” 열려 있다?	4
아나키즘 vs. “덜이데올로기적인” 조합주의	6
지금은?	7

한철학자는 역사를 배우지 않는 자는 그 오류를 반복한다고 이른바 있다. 역사는 과거로부터 올바르게 지냈던 것을, 잘못되었던 것을 찾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실수를 피할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사회적·노동계급적 투쟁의 조건과 상황이다. 다른 수천 킬로미터 바깥의 동지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저 우쭐대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가스페인의 아나키즘적 조합주의 운동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나는 그곳에서 위대한 혁명의 빛나는 승리만을 보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일부 내적 문제 역시 바라본다. 그리고 그 문제는 CNT 의 영웅적인 역사 전반에 동일하게 남아 있다.

1920년대 초에 이루어진 볼셰비키의 장악 시도, 정치 참여에 대한 끝없는 논쟁, 프리모 데 리베라 (Primo de Rivera) 에 대한 반독재 투쟁에서 안헬 페스타냐 (Ángel Pestaña) 와 호안 페이로 (Joan Peiró) 등의 지도 그룹이 야당 정치인들과 협력한 것, 트레인티스모 Treintismo,¹ 1936년 7월 사라고사 총회 Zaragoza congress 에서 결의한 『자유 의지주의 적 코뮌주의 연방 강령』 의 실천 거부, 내전 과정에서의 “미니스테리알리스모 Ministerialismo”², 1940년대와 50년대 중 프랑코와의 투쟁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당들과의 공동 전선, “싱코푼티스모 Cincopuntismo”³, 개량주의자들의 침투와 이로부터 비롯된 CGT 의 분열, 그리고 무엇보다 “이단” 과의 실질적 문제들 등...

“모순”에 관하여

CNT 가 그 역사 내내 개량주의와의 공고한 투쟁을 이끌어왔음은 분명하다. 개량주의는 언제나 패배했지만, 계속 갱신되어 가며 되살아났다. 개량주의가 언제 발발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질병을 치유하지 못할 것이다.

소위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에 있어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건 해가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아나키즘적 조합주의는 최종적 목적과 매일의

¹ 사회혁명 전이 행기의 필요성을 긍정한 CNT 의 내부 분파와 그 이데올로기. 즉각적인 혁명을 주장한 “FAI 주의자”들과 노선 투쟁을 벌였다. -역자주

² 이탈리아 사회당 등에서 발원한 의회주의적 사회주의. 자유주의 정당의 진보적 부분과의 연계 역시 전술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함. -역자주

³ 1960년대, 프랑코가 설립한 어용 노조 CNS (Confederación Nacional de Sindicatos) 와 CNT 의 일부 분파가 체결한 5개 조합의 합의. 이 합의를 통하여 프랑코의 어용 노조는 그 조직 확대에 탄력을 받았다. -역자주

성취간의, “최대주의”와“개량”간의“유물론적모순”에놓여마치줘가난
 듯행동한다는것이다. 이관점에따르면아나키즘적조합주의의길은매우
 좁고, 때문에“개량주의”로전락하기매우쉽거나심지어“자연스럽다”고
 할수도있다. 하지만어떠한질병을간단히“자연스러운것”이라선언하는
 것은불가능하며언젠가치명적이될것이다. 헤겔적“부정의부정”을주장
 하는마르크스주의자들정도만이모순을모든발전의기반으로둘수있을
 뿐이다. 아나키즘은그목적으로조화를추구하며, 이목적은모순의소멸
 과조화의회복하는수단을통해서만이룰수있다. 모순에의해부서진유기
 체는결코일관되게, 지적으로, 목적적으로기능할수없다. 장기적으로그
 것은결국패배할것이다.

아나키즘적조합주의의일반원칙중하나는다나키즘을목적으로두고
 조합주의를수단으로두는것이다. 무엇보다아나키스트노동자운동혹은
 아나키즘적조합주의는알려진대중아나키즘의유일한형태다. 그리고이
 것은아나키즘적조합주의가매일의공고한투쟁을통해인민의연대와자
 주적역량을회복하고, 위계와지배가없는새로운삶의전망을제시할수있
 기때문이다. 매일의조합적행동이야말로아나키스트의목적을달성할수
 있는최고의수단이지만, 자유를소망하는사람들에게그자체가가치있는
 것은아니다. 우리운동내부의누구도그것에대해공식적으로의구심을제
 기하지않는다. 하지만가끔현실은다르게보인다….

“모든노동자에게”열려있다?

스페인 CNT 의특이성은그힘과놀라운성공의근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그문제 (일부는“외부에서유입된”문제이기는다) 의기반이
 기도했다. 먼과거를바라보지않더라도우리는스페인의 CNT 가 1910
 년, 두가지서로다른전통의교차점에서설립되었음을기억할수있다. 한
 전통은제 1 인터내셔널의스페인지역연방과그노동자조직이다. 이들
 은명확하고개방적인자유주의주의적목적을가지고있었으며, 일상의개
 선뿐아니라자유롭고국가가없는사회를향해투쟁했다. 또다른전통은프
 랑스 CGT 가대변하는직접행동을기반으로한혁명적조합주의였다. 이
 옷나라에서성장한이운동의영향력은스페인노동자조직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이름이었던“소시에다데스테레시스텐시아 (Sociedades de
 Resistencia, 저항협회)”를포기하고프랑스식의“생디칼”을수용하게
 할정도로매우거대했다. 혁명적조합주의의일부핵심강령들이피레네를
 건너왔다. 특히그이상과사회적목적에무관하게“모든노동자에게”열려

개량주의적이고“탈이데올로기적인”조합주의자들은노동자들에게 아무것도주지않고도아나키즘적조합주의운동을죽일수있다. 이제고루한아나키즘과“개방성”의“양면성”을떨쳐내자. 이것을고집한다면우리는패배할것이다. 아나키즘적조합주의의새로운선택지와새로운대안을논의하자. 이것이아나키즘과조합주의의실질적결합에관한“FORA 주의적”실험이아나키스트노동자조직에관한 FORA 의“모델”이실제상황에서유용한이유라고하겠다.

있는노동자조직이라는개념 (이데올로기적으로“중립적인”조합주의) 과미래사회를자유코뮌이아닌조합의연방체로바라보는관점이그러했다.(프랑스 CGT 의아미앵헌장은이핵심지점들을드러낸다.)

하지만 CGT 전통의중요성은프랑스와스페인에서서로다르게나타났다. 프랑스에서혁명적조합주의의수용은노동자운동내부에서권위주의적마르크스주의자들의지배를떨쳐내는과정에서발생할필연이었다. 아미앵헌장은자유지주의자, 권위주의적사회주의자, 순수노동조합주의자사이의합의였고, 아나키스트들은상당기간이헌장을이용하여노동계급내에서자유지주의적이상영향력을확대할가능성을얻을수있었다. 하지만스페인아나키스트노동자운동에는합의가필요하지않았다. 그운동은스스로충분히강했다.

프랑스의상황에서“진보한”개념들은스페인에서혼란스러운양면성을만들었다. CNT 는자유지주의적사회라는목적과“모든노동자에게”열린생디칼이라는두개념을모두수용했다. 심각한모순이만들어졌다. 자유지적목적거부하고단지“노동자이고자하는”사람이어떻게부분적개선만이아니라자유지주의적사회를향한총체적변혁을위해투쟁하는조직의구성원이될수있는가? 이모순은 CNT 안에서“아나키스트”와“조합주의자”(정확하게는더“중립적”조합주의자) 라는두경향사이의영속적인문제를낳았다.

“개방성”의원칙은 CNT 의문을혁명가들뿐만아니라개량주의자들에게도열어젖혔다. “말라테스타적인”입장을가진아나키스트들역시그들의노동조합에대한관점에따라이를지지했다. 이들은노동조합이자유지주의적사회를위한투쟁의수단이아니라, 개량주의적수단이라고바라보았다. “비이데올로기적조합주의”와말라테스타적아나키즘모두가“모든노동자에게의”“개방성”과아나키즘적조합주의조직의최대한신속한양적성장을어떻게든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그리고미래사회에있어“조합적구조”의지지자들 (트레인티스모등) 은아나키즘적조합주의조직이더커질수록, 혁명이가까워질것이라주장했다.

하지만이“수량적”접근의논리적귀결역시문제였다. 조직을키우기위해조합주의조직은그이상을“순화”해야하고, “정상인”들에게더매력적이되어야했다. 이렇게해야혁명적이지않은“온건한”노동자들에게접근할수있기때문이다. 덜아나키스트적이고, 덜“이념적”인“이단”화가필요했다. 정치인들과개량주의자들과의타협에더적극적이되어야했다. 다시말해, 이들은스스로개량주의자가되어야했다. 이때부터“개방성”과“질”에무관한강제적성장은개량주의자의기치가되어 CNT 를내부에서잡아먹었다.

아나키즘 vs. “덜이데올로기적인”조합주의

CNT 의더“아나키스트적인”분파는위험을빠르게파악하고, 이를제거하고자했다. 1920년대초반, 이들은아르헨티나의아나키스트노동자운동인 FORA 의실험에관심을보였다.

“FORA 주의”는“비이데올로기적조합주의”와말라테스타적입장모두를거부했다. CNT 와마찬가지로, FORA 는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 적인목적을가진아나키스트노동조합임을공개적으로선언했다. 하지만이들은 CNT 의“모든노동자에대한개방성”의원칙과양적성장에대한집착을거부했다. “FORA 주의자”들은“아나키스트들과그에공감하는사람들로구성되어노동자들에게투쟁과모든노력의진정한끝을생산생활의매일속에서보여줄수있는자랑스러운노동조합운동의건설”을제안했다 [에밀리오로페스아랑고 (Emilio López Arango), 디에고아바드데산티얀 (Diego Abad de Santillan), 『노동운동에서의아나키즘 El anarquismo en el movimiento obrero』, 바르셀로나, 1925, p.163].

이는조합주의적이며“이데올로기적인”아나키스트노동자조직에대한제안이었다. 더정확하게말하자면아나키스트적이상이명확하고공개적으로정의된조합을의미했다. 아나키스트의사회적목적에근본적으로동의하지않는자들이나“더효과적인”노동조합을찾는이들은이조합에가입할수없었다. FORA 는“아나키스트와그에공감하는사람들”의조합이었다.

유럽아나키스트운동에참여하던다수는이접근에대해오해했다. “FORA 주의”가일종의아나키스트정당을, 모든구성원이스스로를의식적으로“아나키스트”라선언하고, 자유지주의이론을인지하며, 아나키스트들의철학적모임이나실천그룹에참여하는조직을만들고자하는시도였다는오해를하고있다. 이는사실과다르다. FORA 는“의식화된”사람들만을위한것이아니었다. FORA 는“자발적인”아나키스트들, 즉아나키스트이론을모르고스스로“아나키스트”라선언하지도않지만국가없는코뮌주의적사회에대한아나키스트적목표를공유하는사람들역시수용하였다. “철학적, 정치적아나키즘에대하여우리는사회적아나키즘운동에대한우리의개념과우리의현실을제시한다. 아나키즘철학과충돌하지않는광범위한대중의조직, 그리고인간을이상의수용자로바라보는것이아니라있는그대로, 착취당하고압제당한인간일부의구성원으로바라보는것이다.”

페스타나와페이로의정치적인회피를마주했을때, 상당수스페인아나키스트들과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들은“FORA 주의”적선택지에대한동의를드러냈다. 후안고메스카사스 (Juan Gómez Casas) 가 FAI

의역사에대해쓴책을읽어보아도이를알수있다. 하지만결과적으로다른선택지가등장했다. 모든아나키스트실천그룹들을 FAI 로단결하게끔하여 CNT 내부에서“덜이데올로기적인조합주의”라는개량주의적경향성에맞서는아나키스트세력으로행동하고자한것이였다. 시간이지난오늘, 우리는이시도가아주짧은시간동안, 제한된성공만을거둘수있었을안다. 무엇보다도재건된“아나키즘적조합주의”역시서두에언급한모순을해결하지못했다. 모든조직에“특별한”아나키스트가있다면, 이는다른이들(다수)가그렇지않다는것을의미할수밖에없다.

이문제는스페인혁명에서 CNT 의운명을결정지었고, 여전히풀리지않고있다.

지금은?

(스페인뿐만아니라전세계의) 아나키즘적조합주의운동의실제현황은아나키스트전통과아미앵현장의“혁명적조합주의”전통의양면성이개량주의자들의손에서강력한무기가됨을보여준다. 그들은이양면성을활용하여혁명적투사들및노동조합과싸우고, “이상주의적”내용을순화하고, 수량적성장을위하여아나키즘적조합주의를“탈腕이데올로기화”하며, 개량주의적노동조합및정치세력과협력을강요한다. 그들이기대하는것은자명하다. 우리는전세계적인자본주의의공세속에살고있으며, 거대하고“공식적인”개량주의적노동조합은노동자들의방어를조직하고싶어하지않고, 할수도없다. 개량주의적조합주의자들은그존재를인정받고싶어한다. 하지만사회적원자화와흐릿한노동계급의식의결과로, 이들은혁명적아나키즘적조합주의의“극단주의적이고”“과도하게혁명적이며”“과도하게이데올로기적인”부분만을거부하는다수를모집할수있다. 이들의목적은사회의자유지주의적변혁에대한목적이없는“정상적인”(아마도약간더“급진적이고”고집이있는) 노동조합이되는것이다. 결국“비이데올로기적조합주의”는사민주의가될수밖에없다.

하지만이희망중다수는장기적으로허사가될것이다. “후기케인즈주의”자본주의는고집있는“사회적파트너”를필요로하지않는다. 자본주의는조직노동의파괴를, 조직노동의향복을요구한다. 이러한맥락에서자기만의상상속“급진주의”의승리를희망하는개량주의자들에게는자리가없다. 향복을조직하기위해서는, 거대하고“공식적인”노동조합으로충분하다.